최고 품질에 가격까지 '훈훈' 이보다 좋을 수 없는 홈와인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76〉 프랑스 보르도 2019 빈티지

/UGCB 2019 엉 프리뫼르 디지털 프리젠테이션 화면 캡쳐.

품질은 최고인데 가격도 낮아졌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혼와인(혼자+Wine) 또는 홈와인(Home+Wine)에 지쳐가는 와인애호가들에게 희망이 생겼다. 조금만 기다리면 최고의 와인을 비싸지 않은 가격에 맛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프랑스 보르도 2019년 빈티지다.

와인에서 빈티지(vintage)란 포도를 수확한 해를 말한다. 프랑스 보르도는 매년 온화한 기후가 이어지는 미국 캘리포니아나 호주 등과 달리 해마다 포도재배 품질에 편차가 날 수밖에 없고, 와인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빈티지가 중요한 기준 중 하나로 여겨진다.

보르도의 2019년은 날씨 등 환경으로 보자면 전년인 2018년과 달리 좋은 해는 아니었다. 우박과 곰팡이 등으로 수확이 늦어지면서 와인메이커들은 기적을 바래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와인으로 만들고 보니 평점이 대부분 90점을 넘어가고 있는 2018년에 뒤지지 않았다.

과실미는 세련됐고, 타닌은 과하지 않으면서 산도도 균형감이 좋았다. 오히려 2018년보다 좋을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컨설팅 전문가 인 토마스 듀 클로스는 "(21세기 들어 최고 빈티지로 꼽히는)2015년과 같은 관능미와 함께 (역시 가장 좋은 빈티지 중 하나로 꼽히는)2010년의 깊이와 밀도를 가지고 있어 2018년보다 2019년 빈티지를 더 선호한다"며 "2019년이 최근 몇 년간 보르도의 위대한 진화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평가했다.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인 제임스 써클링이 프랑스 보르도 와인 2019년 빈티지를 맛보고 있다. /제임스 써클링 닷컴

세계적인 와인 평론가 제임스 써클링은 "매끄러운 타닌과 순수한 과실미는 (와인애호가들이) 보르도에서 기대했던 것이며, 일부 와인의 품질은 환상적"이라며 "오랜 와인 비평가이자 저널리스트로서 볼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비슷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강조했다.

말하자면 2019년은 소위 '그레이트 빈티지'로 이미 낙점됐지만 가격은 오히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때문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와 비슷한 상황이다. 모든 소비재의 수요가 위축됐고, 와인도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다.

이미 보르도 와인만의 선물 거래 시스템인 엉프리뫼르(En Primeur)에는 2019 빈티지의 와인 가격이 최소 10% 안팎, 최대 절반 수준까지 낮아졌다.

보르도 특급 5대 샤또 중 하나인 샤또 오브리옹은 이달 2019년 빈티지를 선물매매로 282유로(원화 약 38만원)에 내놨다. 2018년 빈티지 대비 30% 이상 하락한 수준이다. 미국 주요 와인 소매업체들은 지난해 2018년 빈티지를 병당 50만원 안팎에 거래했다. 현재 비슷한 수준으로 꼽히는 2015, 2016년 빈티지의 소매가 대비로는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샤또 무똥 로칠드 역시 선물시장에 2019년 빈티지를 병당 282유로에 내놨다. 2018년 408유로 대비 40% 이상 낮은 수준이다.

최고의 품질에도 134개의 최고 샤또들로 구성된 보르도 그랑 크뤼 연합(UGCB)은 코로나19 탓에 엉프리뫼르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전세계 시음회를 대폭 줄이고 디지털 프리젠테이션으로 2019 빈티지를 소개해야 했다.

/smahn1@metroseoul.co.kr

커스텀멜로우, 권오상 작가와 콜라보 진행

'Relief' 시리즈 티셔츠에 담아

커스텀멜로우x권오상 콜라보레이션

코오롱인더스트리FnC부문(코오롱FnC) 남성복 브랜드 '커스텀멜로우'가 조각가 권오상 작가와 콜라보레이션 상품을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업은 커스텀멜로우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아티스트와의 협업으로, 브랜드를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하면서 권오상 작가의 작품을 옷으로 소장할 수 있도록 한 것.

권오상 작가는 2차원적인 사진과 회화를 3차원 조각에 결합하여, 조각이라는 전통적인 형식에 동시대의 감성을 담는 것으로 잘 알려졌다. 권오상 작가는 유명 편집샵에 작품을 전시하는 등 패션 브랜드와의 인연을 이어왔지만, 본격적인 콜라보레이션 상품 출시는 커스텀멜로우와 처음 진행했다.

커스텀멜로우는 권오상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티셔츠 10종과 볼캡 1종을 출시한다. 이번 콜라보레이션 상품은 권오상 작가의 작품 중 'Relief' 시리즈를 그대로 티셔츠에 옮겼다. 'Relief' 시리즈는 작가가 잡지에서 골라낸 이미지들을 서로 겹쳐, 평면이지만 부피감이 느껴지는 것이 특징이다.

/조효정 기자

한섬, 밀레니얼세대 맞춤 편집숍 론칭

온라인 전용 캐주얼 브랜드 '레어뷰'

한섬EQL 레어뷰

한섬이 밀레니얼 세대 공략을 위해 온라인 편집숍 'EQL' 전용 브랜드를 선보인다. 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을 통해 EQL 경쟁력을 강화하고, 10~30대 영고객들의 패션 트렌드를 리드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EQL은 한섬에서 지난달 밀레니얼 세대 소비자들을 겨냥해 오픈한 모바일 기반의 온라인 편집숍으로, 감각적이고 트렌디한 130여 개의 의류·잡화·뷰티·라이프스타일 브랜드로 구성돼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패션전문기업 한섬은 온라인 전용 캐주얼 브랜드 '레어뷰'를 론칭한다고 18일 밝혔다.

레어뷰는 유니섹스 캐주얼 브랜드로, 단색과 심플한 로고를 중심으로 디자인한 '베이직 라인'과 매월 새로운 시즌성 트렌드를 제안해주는 '월별 기획 라인'으로 구성된다. 이번 여름 시즌 티셔츠·셔츠·팬츠 등 총 23개 모델이 출시되며, 온라인 편집숍 EQL에서만 단독으로 판매된다.

한섬은 레어뷰 론칭을 위해 별도 TF팀을 구성하는 등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6개월가량 온라인 전용 브랜드 운영에 대한 준비를 했다. 한섬은 특히, 레어뷰 개발 과정에서 제품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타임·마인·시스템 등 기존 브랜드에 적용하고 있는 동일한 퀄리티 기준을 적용했다.

/조효정 기자

계절밥상, 여름 신메뉴 출시

"건강·면역 한입에… 여름보양음식 맛보세요"

장어·등갈비·막국수·빙수 등 제공
우리 농가 살리기 캠페인 함께 실시

CJ푸드빌 계절밥상 '초여름 보양대전'

CJ푸드빌 계절밥상이 이른 무더위를 맞이해 '초여름 보양 대전'을 시작하고 다양한 여름 신메뉴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건강과 면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여름철 보양에 제격인 여름 메뉴를 선보인 것.

'고추장장어 더덕구이'는 기운을 북돋워 줄 수 있는 장어를 튀겨 감칠맛 나는 고추장 소스로 버무리고 향긋한 더덕구이와 파채를 곁들인 일품 메뉴다. '간장 등갈비구이'는 부드럽고 촉촉한 등갈비를 달콤짭조름하게 간장양념해 구워 남녀노소 즐기기 좋다. '간장 등갈비구이'는 평일 저녁, 주말에만 제공한다.

두 신메뉴는 프리미엄 도시락으로도 선보여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민라이더스 등 배달앱 및 네이버 스마트 주문에서 간편하게 주문해 편리하게 즐길 수 있다.

'여름열무 막국수'는 여름철 시원하게 즐기는 열무김치와 새콤달콤한 국물, 여러 가지 재료를 취향에 맞게 조합하면 입맛 돋우기로 제격이다. 고급 과일로 부드러운 과육에 진한 단맛을 자랑하는 '애플망고'가 종일 제공된다. 아이스크림과 얼음으로 '애플망고 빙수'를 직접 만들어 즐길 수 있다.

계절밥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가를 위한 '우리 농가 살리기 캠페인'도 실시한다.

국내산 옥수수와 가지로 만든 다채로운 메뉴를 준비하고 농산물을 키운 농부님을 위한 응원 메시지를 비치한다. 정선 찰옥수수로 만든 '정선옥수수&깍지콩구이'는 고기 메뉴와 잘 어울린다. 옥수수를 그대로 쪄 제공하는 '정선 찐옥수수'도 있다.

/조효정 기자 princess@

유니클로, 패션 브랜드 최초 '브라탑' 선배

코튼 소재 등 데일리웨어 활용도 ↑

유니클로 '브라탑 컬렉션'

유니클로는 일상을 편안하게 만드는 옷을 선보이는 '라이프웨어' 철학에 기반해 패션 브랜드 중 최초로 '브라탑'을 선보였다.

브라탑은 브라컵이 부착되어 따로 속옷을 착용할 필요가 없고, 소재와 디자인이 다양해 데일리웨어는 물론, 라운지웨어와 애슬레저웨어로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웨어이다. 특히, 유니클로 브라탑은 여성들의 신체와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오랜 연구에 기반해 가슴을 안정적으로 지지하며, 브라컵이 가슴에 부드럽게 밀착해 활동하기 편안하다.

유니클로는 먼저, 봉제선이 없는 디자인으로 두께가 얇은 옷을 입어도 티가 나지 않아 인기가 많은 '심리스 라인업'은 기능성 소재인 '에어리즘' 뿐만 아니라 코튼과 레이스 소재로 출시해 데일리웨어로서의 활용도를 높였다.

대표 상품인 '에어리즘 심리스 V넥 브라캐미솔'은 고객의 의견을 반영해 어깨끈이 쉽게 꼬이지 않도록 개선했으며, 많은 여성이 신경 쓰는 겨드랑이 부분을 눌러주는 밴드를 더욱 부드러운 소재로 변경해 더욱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조효정 기자